

국제기준미달 외국선박에 점검비용 부과

항만국통제시 인력투입 비용 부과 추진

해양수산부는 국내 입항 외국선박이 항만국 통제시 국제안전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해당 선박의 결함 사항 시정확인을 위한 인력투입에 따른 점검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항만국 통제는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선박의 국제협약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기준 미달 선박에 대해선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다. 항만국 통제시 안전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시정될 때까지 선박을 출항정지시킬 수 있다.

최근 해운경기가 호전됨에 따라 기준미달 선박의 운항이 증가하고 있어 출항정지율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양부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결함이 지적된 기준미달 선박들에 대한 시정확인에 드는 비용을 비용발생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케 함으로써

항만국통제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6년 9월 부산항과 인천항에서 처음 시작해 1988년 9월 전체 무역항으로 확대 실시했다. 지난 2003년에는 2893척에 대해 점검을 해 2070척의 결함선박을 적발(결함률 77.55%)했고, 80척을 출항정지시켰다. 지난해에는 3305척을 점검해 2000척의 결함선박을 적발(결함률 60.51%)했으며, 110척에 대해 출항정지를 시켰다.

해양부는 기준미달선에 의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 불량선박에 대한 집중점검과 항만국통제 전담인력 확충으로 점검률을 제고하는 등 국제안전기준 미달 외국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미 상무부, 중국산 의류수입 규제 움직임 가시화 일부 품목 연간 수입증가율 상한선 7.5%로 규정

미국 상무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WTO 규정에 따라 섬유 수입 쿼타제 폐지 이후 무역 지도를 바꿔버린 중국산 의류 및 섬유 수입을 규제할 방침이다.

중국산 의류 및 섬유 수출의 급증으로 아시아에서 로스앤젤레스/롱비치 및 뉴욕/뉴저지로 향하는 컨테이너 화물이 급증했다.

중국의 의류 및 섬유 수출 증가로 인해 도미니카 공화국 등의 수출 물량이 급격히 감소했다.

미국의 Committee for the Implementation of Textile Agreements는 면소재 셔츠, 블라우스, 바지, 언더웨어 등의 연간 수입 증가율 상한선을 7.5%로 규정했다. 중국의 수출업체는 이 결정에 대해 분노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정말 잘못된 선택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미국 무역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셔츠 수출물량은 지난 4개월간 1,350%, 바지는 1,500%가 증가했다.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아시아에서 북미 지역으로 수송되는 일부 컨테이너 화물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컨테이너선 시황은 이제 본격적인 성수기로 접어들고 있어 시황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